



광주지역 올 3분기 청약지표 상승... 전남은 부진

직방, 금융결제원 전국 아파트 청약결과 분석

청약 경쟁률 광주 47.1 대 1... 전남은 6.0 대 1 그쳐

광주지역 올 3분기 청약지표가 '개선'된 반면 전남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하락했던 광주 청약경쟁률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청약미달률 역시 전국 유일의 4분기 연속 0%를 기록했으며 평균 최저가점도 올랐다. 반면 전남지역 청약경쟁률과 평균최저가점은 하락했고 청약미달률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이

발표한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3분기 청약경쟁률은 전국 17.6대1, 수도권 22.3대1, 지방 14.2대1로 2분기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상승했다.

지난 3분기 지역별 청약경쟁률은 △광주 47.1대1 △전남 6.0대1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이 136.7대1로 가장 높았고 세종(65.3대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2분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

약경쟁률(97.1대1)을 기록했던 광주는 같은 해 3분기 17.4대1로 하락한 뒤 다시 4분기 52.0대1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에는 48.6대1, 2분기엔 21.3대1로 내렸다.

광주지역 청약미달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0%를 기록했다. 평균최저가점은 54.7점으로 전분기(49.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전남 청약경쟁률은 6.0대1로 전분기 9.1대1보다 낮아졌으며, 청약미달률도 34.8%로 전분기 18.5%보다 크게 높아졌다. 평균 최저가점은 47.3점으로 전분기 48.3점보다 낮아졌다.

지역별 청약 결과 (단위:%)

지역	통계항목	2018				2019		
		1Q	2Q	3Q	4Q	1Q	2Q	3Q
광주	청약경쟁률	9.4	97.1	17.4	52.0	48.6	21.3	47.1
	청약미달률	0.0	0.0	9.8	0.0	0.0	0.0	0.0
	평균 최저가점	39.7	57.5	49.8	51.6	57.3	49.9	54.7
전남	청약경쟁률	21.4	10.0	2.0	10.0	0.1	9.1	6.0
	청약미달률	31.8	7.7	12.8	4.2	89.8	18.5	34.8
	평균 최저가점	49.2	40.8	28.5	57.0	-	48.3	47.3

직방 관계자는 "기간별 청약가산한 제로 분양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 서 분양수요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며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분

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축소될 경우, 당초보다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 기대로 인해 분양시장의 수요 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기자 kanjae.park@jilbo.com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49층 아파트 조성



롯데건설이 설계 제한한 풍향구역 초고층 아파트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 내달 시공사 선정

광주 북구 풍향구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광주시 최초 금관의 모습을 형상화 한 시그니처 크라운타워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우수한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가 유리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뿐 아니라 희소성과 상징성이 높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은 최근 광주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권 입찰에서 초고층 아파트 설계를 제한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총 3070가구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 캐슬'을 적용해 단지의 상징성과 희소성을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롯데건설은 49층 랜드마크 건물을 광주시 최초 거대한 금관을 형상화한 시그니처 크라운타워로 조성해 고급스러

움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3개동을 연결하는 원형 스카이라이프 2개소도 들어선다. 스카이라이프에는 게스트 갤러리, 게스트룸, 파티갤러리, 아트갤러리, 스카이라이프, 전망대 등이 조성된다.

랜드마크 급으로 지어지는 만큼 단지에 다채로운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녹지율 40%로 수변공원, 테마공원, 산책로, 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며 옥상 및 벽면도 녹화작업을 통해 쾌적함을 더할 방침이다.

풍향구역 시공사 선정은 오는 11월 9일 총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는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광주에는 아직 초고층 단지가 없다"며 "풍향구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단지의 가치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층 아파트 조성이 심의사항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 풍광수도 햅쌀 홍보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공동으로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도 햅쌀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릴레이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7일부터 수도권(서울·고양)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31일~11월 13일 농협창동유통센터와 삼송유통센터에서 고객감사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는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첫 입점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공동으로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도 햅쌀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릴레이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17일부터 수도권(서울·고양)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31일~11월 13일 농협창동유통센터와 삼송유통센터에서 고객감사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는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첫 입점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농협 제공

아시아나 본입찰...애경-스톤브릿지-현산-미래에셋 2파전

금호산업 "내달 7일 실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이 다음달 7일 본입찰을 앞둔 가운데,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의 2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애경그룹은 21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본입찰에 각각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 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한 경영 노하우와 노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간 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구성이 공식화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자금력 있는 인수 후보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곳을 적격 인수후보로 선정했다. 시장에서는 자기자본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선 국내 최대 증권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FI로 참여하는 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을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아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금성 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 인수 성공 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 부문에서 시너지 낼 것이라 점에서도 인수 기대감을 높였다.

더구나 다른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KCGI-뱅크스트리트 컨소시엄은 여전히 SI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권단과 정부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은 국내 SI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애경그룹은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단독 본입찰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구성이 공식화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자금력 있는 인수 후보가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애경그룹은 즉각 조달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가 약 4000억원 수준,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자산운용 규모는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실한 재무구조, 누적되지 않은 항공업황은 여전히 부담이다. 올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9조5899억원 규모이며, 부채비율은 660%에 달한다. 올해 2분기에만 1241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규모는 2조 원 안팎 수준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대금은 4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구조 인수대금에 8000억원 이상을 운영자금 등으로 발행해,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주간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11월 7일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시 매매 계약 체결 등 절차가 진행된다. 금호산업은 연내 매각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뉴스

국세 고액상습체납 최다 광주 거주 기업인

심기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2018년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다를 광주 거주 기업인으로 249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9억1800만원 꼴이다.

개인 체납금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8700만원에 달했다. 광주 진곡산단 소재 모 업체 전 대표로 부가 가치세 등 총 9건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2위는 서울 거주자로 180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963억5100만원(33.2%), 경기 1777억2800만원(30.0%), 인천 424억6400만원

(7.2%) 등으로 수도권이 70.4%를 차지했다. 광주는 300억1600만원(5.1%)으로, 대구 315억8600만원(5.3%)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전국의 법인·개인 체납자는 7158명으로 총 5조244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4300명(1조60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10억원 1845명(1조2435억원), 10억~30억원 833명(1조3265억원), 30억~50억원 97명(3735억원), 50억~100억원 68명(447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은 15명(2471억원)에 달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동걸 산은 회장 "아시아나 분리매각 어렵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연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덩어리가 크면 매수자가 적을 수 있지 않느냐"는 성일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스티트스가 완성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이어서 (분리매각을 검토

하기는) 늦었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주체에서 검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매각 과정 중에서 방침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

이코노미 플러스

6차산업 농가체험단 모집 전남농복합센터, 내달11일까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송경환(센터장)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우수체험농가 지원 및 홍보를 위한 '2019년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우수농가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마감은 11월11일까지 선착순 30명이며 선정지는 자부담(2만5000원) 납입 순으로 12일 발표한다. 체험행사는 11월15~16일까지 진행한다.

체험단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우수농가 체험단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우수인증농가를 방문해 강의, 체험 및 숙박을 제공 받는다.

체험단은 농가체험을 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개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는 '전남6차산업' 홈페이지(<http://www.전남6차산업.com>)이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김영창 과장(061-750-5294·yckim@scnu.ac.kr)로 하면 된다. 박근혜 기자

벤츠, 전기차 'EQC 400' 출시 1회 충전 309km 주행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자사 전기차 관련 기술 브랜드 EQ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EQC 400 4MATIC'을 22일 공식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더 뉴 EQC는 다임러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모델로 지난해 9월 스웨덴 아테넬라아트 뮤지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서울 모터쇼를 통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독창적인 내외관 디자인과 새로운 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퍼포먼스,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모델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더 뉴 EQC에 탑재된 배터리는 다임러의 자회사인 '도이치 어큐모티브(Deutsche ACCUMOTIVE)'에서 생산한 최신 80kWh 리튬 이온 배터리로, 한번 충전에 309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뉴스

장애인 제주여행 활성화 지원 기아차 초록여행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이 장애인들의 제주여행을 지원한다.

기아차는 전문여행사 두리함께와 지난 18일 장애인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제주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그동안 수도권(서울·성남)과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충청권(대전), 강원권(강릉) 등 내륙 중심으로 운영되던 초록여행을 제주지역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아차는 다음달부터 매주(금·일) 제주를 떠나는 장애인가정 여행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가정은 초록여행 사이트에서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예약은 선착순이며, 가정당 최대 4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기아차는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두리함께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차량에 승차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카니발' 차량과 제주공항 픽업&드랍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록여행은 기아차가 2012년 6월 시작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7년간 약 5만 명의 장애인가족의 여행 기회를 제공했다.

박근혜 기자 kanjae.park@jilbo.com